

목소리

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세요.

- <나눔+>의 글씨체나 글씨 크기가 읽기 편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나눔+>의 표지가 마음에 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나눔+>의 발행주기(현재 분기별 계간 발행)가 적절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이번 호 <나눔+>에서 가장 유익했던 코너는?
 (.....)
- <나눔+>에서 꼭 다뤄줬으면 하는 아이템 및 기타 의견을 주신다면?
 (.....)
- 귀하의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해당 설문은 <나눔+>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보내주신 좋은 의견을 모아 소식지에 반영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려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7 5 3 7

www.cartassoul.or.kr/bokji
 Tel. 02-776-1314 Fax. 02-754-56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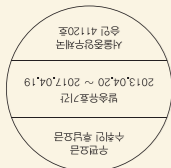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

금 6월 16일

4 5 6 7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
 2016 Winter
 vol.369

나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22,19)

CONTENTS



COVER STORY

표지 촬영 송새암

2016 Winter <나눔+> vol.369

발행일 2016년 12월 23일 발행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발행인 유경춘 전화 02-776-1314 팩스 02-754-5636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bokji
기획·편집 교육·홍보팀 송새암 02-727-2256 디자인 디자인수다 02-3446-5202 인쇄 연합프로세스

* <나눔+>는 무료로 배포되며,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눔+>의 저작권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있습니다. Copyright@caritasseoul.all rights reserved.

SPECIAL THEME

04 이슈

카리타스 영성의 실천

- 사회복지 현장에서

12 카리타스의 겨울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

15 칼럼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의 멘토

아우구스티누스

18 성경으로 세상보기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복음묵상글 릴레이

<성경으로 세상보기>

22 나눔 길라잡이

대림저금통

24 카리타스 가족

26 카리타스 한 줄 소식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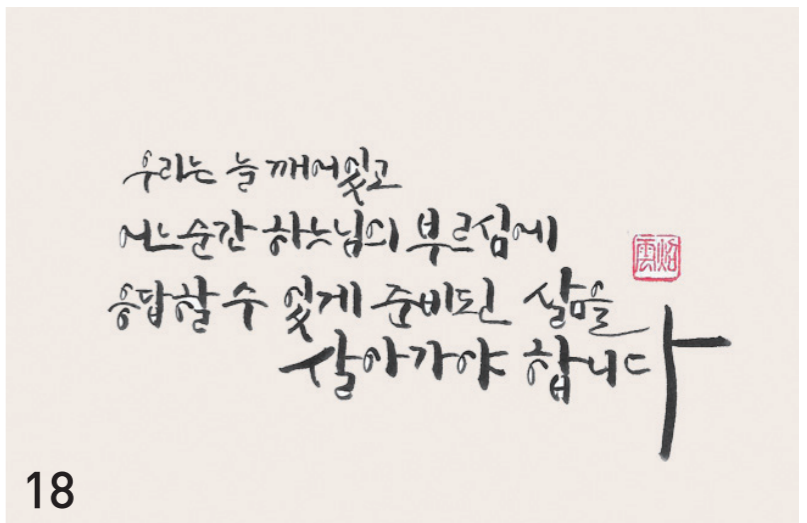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합니다.

Vision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사회복지 기관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 사회복지회
미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 사회복지 기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Caritas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계명인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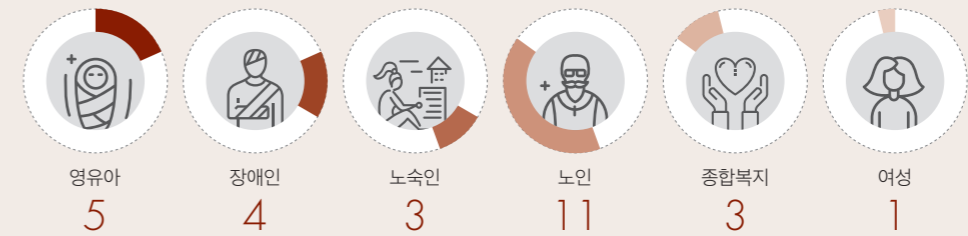
카리타스 영성의 실천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직영·수탁 시설장, 부장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수 중 2016년 실천사항인 '교회의 가르침'을 '제가 하겠습니다(I DO!)'와 연계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시상하기 위해 사전공모를 받았고, 올해에는 총 27개 시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는 작년도 참여기관 수인 11개의 2.5배에 달하는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 기관이 고르게 응모한 것도 주목할만한 성과입니다. 응모 기관이 전 사회복지 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즉, 법인과 시설이 구심점 삼아 공동으로 실천했던 하나의 주제가 분야를 막론하고 고르게 퍼져 체득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지만, 다수의 시설이 매우 훌륭하게 지난 1년간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법인은 사목교서와 사목방향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합한지, 법인의 미션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등을 주요 평가사항으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최우수 시설 1곳, 우수시설 6곳, 장려시설 10곳이 금번 시설장, 부장 연수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시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우수시설현판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2016년도 실천사항 우수시설 영역별 응모기관 수]



이번 호에는 실천사항인 '교회의 가르침'을 '제가 하겠습니다(I DO!)'에 연계하여 진행했던 최우수시설인 도곡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입니다. 특히 도곡어린이집은 2015년도 우수시설에서 2017년도 최우수시설로 발돋움 하면서,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카리타스 영성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 실천사항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06p)와 같은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직영 수탁 시설장, 부장연수에서 차기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사목지침을 깊이 있게 공유하였습니다. 2017년도 한해, 법인과 시설은 이를 구심점 삼아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도 실천사항 수상시설]

훈격	시설명
최우수시설 (1)	도곡어린이집
우수시설(6)	서초3단지어린이집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서초노인요양센터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원당어린이집
장려시설(10)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구장애인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화곡본동성당데이케어센터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서울시여성보호센터	



I. 2017년 사목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 -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뜻에 따라 2013년 한 해를 ‘신앙의 해’로 지내면서 우리의 허약한 신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신앙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한 해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어, 기도로 자라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강화의 여정을 걸었고, 올해는 미사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미사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주님의 말씀, 공동체의 기도



1)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 헌장」, 10항.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종합선물과도 같은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이며 원동력입니다.

미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천 년 전에 배경과 기질이 서로 다른 제자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서로 다른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미사 안에 현존하시며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과 일치치를 이루면서 형제적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그으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호경을 바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전례 중에는 독서와 복음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님과 일치 안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루카 8,21)

미사 전례 중에 ‘신경’을 바치며 가톨릭 교회가 2천 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 온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신앙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 시간적으로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왔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하나가 되고,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신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 전례에서도 주님과 일치, 신자들 서로 간의 일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봉헌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당신 자신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어려운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과 일치를 이룹니다. 성찬 전례의 핵심인 영성체에서 주님과 일치, 신자들 간의 일치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몸인 성체를 영하게 되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또한 사도 바오로가 역설하듯이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는 이들은 그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6-17)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당신과의 일치 안에서 서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가정 안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듯이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전달되기에 교

2)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강론(2016.5.26.).

회를 멀리하면 신앙의 불꽃은 쉽게 꺼져 버립니다. 어머니이신 교회의 품 안에 머물면서 미사에 참례하여 복음을 함께 경청하고, 사도로 부터 이어 오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가진 바를 서로 나누고, 영성체로 주님 안에서 서로 일치될 때 신앙은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미사 중에 주님의 말씀과 성체의 힘으로 신앙이 자라나 굳건해질 때 세상에 나아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동시에 이웃에게 빵과 신앙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하시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영적·물질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²⁾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주어라.”(마태 14,16)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³⁾ 삶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힘은 바로 성체성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사랑의 힘⁴⁾을 믿고 체험하고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굳건한 믿음, 확고한 희망, 따뜻한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교회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는 특별히 미사 전례의 핵심이자 ‘교회 일치’의 원천이며 친교의 공헌(公顯)인 성체성사⁵⁾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교구민 모두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제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축성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여러분 손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랑의 기적을 증언하며 전달하는 고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거룩한 미사를 첫 미사 때와 같은 기쁨과 열정으로, 생의 마지막 미사처럼, 유일한 미사처럼 거행하십시오. 또한 감실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며⁶⁾, 감실 안에 머무시는 주님을 세상 삶의 자리로 모셔가십시오.

수도자 여러분,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당신 곁에 머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교를 더욱 깊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삶에 의미와 충만함을 채우고 증언하십시오.⁷⁾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지만 삶에 필요한 빛과

3)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 88항.

4)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강론(2016.5.26.).

5)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21항.

6)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30항.

7)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30항.

힘을 성체성사에서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정의 아름다움과 사명을 충만히 체험하기 위해서 성체성사의 은총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성화의 기반은 세례성사에 있으며 성체성사에서 그 극치를 이룹니다.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사랑의 마음과 나눔의 신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⁸⁾ 아울러 ‘가정은 최초의 신앙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육자’⁹⁾이므로 부모는 믿음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고 뿌리내리도록 보살펴야 할 자신의 의무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미사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례하기 바랍니다. 미사 전에 성실히 준비하도록 합시다. 전례 시작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심을 올리는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잠시라도 가집시다. 또한 그날 미사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내적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합시다.¹⁰⁾

성체 공경은 미사 중에는 물론, 미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체께 마땅한 흠숭을 드리기 위해 개인적인 성체 조배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시간과 성체 강복에 자주 참여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노령으로 미사에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병자 영성체로써 영적 도움을 주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교회 생활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가 우리의 삶과 복음화의 중심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사 전례 안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깊이는 사랑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파견합니다. 우리 교구가 미사로 하나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임을 함께 느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¹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체성사의 모범이시며 인류 최초의 감실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빵과 포도주가 되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16년 11월 27일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유영수 경

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86년도 주교단 사목교서, 『성체와 가정』, III-9항, 11항.

9)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년 제10회 교육 주간 담화문.

10)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 『사랑의 성사』, 55항.

11) 참조: 로마 미사 전례서 감사기도 3항식.

최우수시설소개 : 도곡어린이집

도곡어린이집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심화된 기도와 말씀묵상으로, 지난 3년간 실행해온 실천사항 반영 프로그램이 공동체 구성원에게서 열매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교직원/영유아/학부모로 공동체를 세분화 하여 진행하였고, 각각의 대상에 적합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꾸렸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나의 길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8회에 걸쳐 연중, 성월별 교회의 가르침을 도곡어린이집만의 색깔로 녹여낸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가야 할 길을 알아보고, 하느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주적 영성을 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행에 그치지 않고 평가를 통하여 계승 발전시킬 점, 쇠신해야 할 점, 새롭게 시도해야 할 점 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에 근거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실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표11 참조) 또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동화를 기반으로 지구사랑 실천을 생활 안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성경동화를 기반으로 한 성극 등의 프로그램은 자폐아동의 자기 표현을 돕는 등 장애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4월

사순시기

휴과 나무의 날 “축복의 나무 축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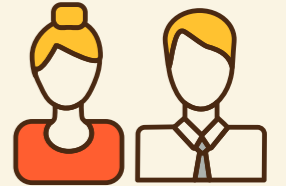


-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 휴과 나무의 소중함을 안다.
- 축복의 나무를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나무의 소중함을 알고 소중하게 가꾼다.

5월

성모성월

성모성월 이야기 ‘엄마, 아빠 생각’



- 성모님의 마음과 같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껴본다.
-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어떤 행동과 마음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6월

예수성심성월

예수님의 마음을 닦고 싶어요



‘서로 사랑해요’

-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은 샘처럼 깊고 넓어서 모든 이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다.
-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항상 이웃을 돕고, 용서하고, 나누어 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7+8월

연중시기

소중한 물 이야기 ‘성수란 무엇인가?’



- 하느님이 주신 자연인 물을 소중히 여긴다.
-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의 물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9+10월

‘추수감사절’

감사 이야기 ‘추수감사절’



-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 농부들의 수고와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11월

위령성월

등불 이야기 ‘성 마르틴’



- 나눔과 사랑의 성인 마르틴의 일생을 통해 참된 나눔의 삶을 본받는다.
-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참여하는 태도를 배운다.

12월

대림, 성탄

성탄 이야기 ‘기쁜 성탄’



-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의미를 함께 느끼고 나눈다.
-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체험을 하며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마음에 새긴다.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은 서울대교구차원에서 매달 한 번씩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서울대교구 후보에 소개하고, 교우들의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후원대상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각 위원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약 270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 받은 분들이나 기관 중에서 선정합니다. 겨울호에서는 9, 10, 11월에 소개된 사연을 축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사연글 및 사연에 대한 후기는 게재3개월 후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연초를 맞이하여, 기부금 영수증 페이지도 개설하였으니 이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cc.catholic.or.kr>)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세요.



9월 이웃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2016년 3월, 복지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내가 사용한 옷을 기증하고 싶은데...” 함준영(가명, 83세) 어르신께서 자신의 옷을 정리해 복지관에 기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부인 줄 알았는데, 어르신은 자살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너무 외롭고, 아프고, 힘들어 죽고 싶어.” 어르신은 악화되고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우울함, 추위를 막아줄 수 없는 주거환경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셨습니다. 복지관 관장 신부님과 직원들이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바로 어르신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전기세 때문에 난방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긴급지원을 해드리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방문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산하 6개 종합사회복지관(등촌7, 동작, 상계, 신당, 유락, 한빛),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연대하여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던 재단의 후원금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참여 기관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생명존중’의 향기를 보다 널리 전파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에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느님 사랑으로 전달되어 살만한 세상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10월 이웃

꿈터 새터민지원센터



2016년 10월의 어느 날, 북한 이탈 주민쉼터에서 한리수 자매님(가명, 45세)을 만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식당일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브로커의 말에 중국의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갖은 협박과 폭행을 당하며 허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나는 노모와 살아가던 반신불수 장애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입에 풀칠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언제 복송 될 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아이들을 위해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왔는데, 임신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셋째를 출산 후 아이가 아파 서울에 있는 병원을 자주 오가게 되면서 서울에 정착해야 했지만, 주거지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착금 일부를 브로커에게 떼인데다, 중국에 있는 두 아이에게 돈을 보내고 나니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수녀님을 만나 이곳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쉼터 거주 기간이 지난 데다 중국에 방치된 아이들도 데려와야 해서 더는 쉼터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중국에 머무는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탈북 여성들 상당수가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팔려갑니다. 설령 탈출해서 한국에 온다 해도 그 동안 겪은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꿈터 새터민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 의료 지원, 자녀학습 멘토링,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꿈터 새터민지원센터에 많은 후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1월 이웃

헬렌켈러의 집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온 11월, 시각중복장애인시설인 '헬렌켈러의 집'에서 이해나(가명, 10세)양을 만났습니다. 해나는 다운증후군으로 지적장애와 내사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2010년 아동임시보호소에서 의뢰되어 헬렌켈러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자였던 해나 아빠의 상습적인 구타를 못 이기고 해나 엄마는 가출했었습니다. 동네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해나와 해나 오빠는 방임으로 인해 기아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해나는 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고 기어 다녔으며, 밥을 먹지 못하고 분유를 먹었습니다. 또한, 소리를 내어 울거나 웃는 등 감정 표현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유독 오빠를 따랐던 해나는 입소 후 몇 달은 "오빠" 소리만 냈지만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엄마, 언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등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재활훈련에 필요한 치료교육과 학습지원으로 그 나이 때 아이처럼 걷고, 뛰는 개구쟁이 소녀가 되었습니다.

헬렌켈러의 집은 청각과 시각장애를 극복한 헬렌켈러 처럼, 가정 같은 환경에서 중복장애를 극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아 개인 입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보호자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한부모가족, 조모부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아 입소비를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 후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헬렌켈러의 스승 '설리반'의 마음으로 이분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세요. ✿

후원영수증 발급 안내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사이트 접속
(cc.catholic.or.kr)



우측 상단 킷메뉴의
'기부금영수증 신청' 클릭

*해당사이트에 인적사항을 등록하시면 내년 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하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학교 특강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의 멘토 아우구스티누스

박승찬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1

방향하던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 로마문화권이었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범적인 유년시절을 보내지 않았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부보다는 놀이만을 즐겨하고, 내기에서도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열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머리는 비상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빨리 배울 수 있었지만 생활태도가 형편없었지요. 특하면 싸움을 하고 다니고, 서리를 하고, 결국 18세의 나이에 신분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미혼부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타카스테의 신사임당이라 불리는 독실한 그리스도교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와 달리, 거친 성경의 문체 때문에 수사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에 크게 실망, 결국 마니교라는 이단종교에 심취하기까지 합니다. 모니카는 이런 아들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젊은 날은 방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

아우구스티누스와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

로마로 거처를 옮긴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회의를 느끼던 차였지만, 명성을 얻기 위해서 마니교 친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는 인맥으로 수사학 학교 중 한 곳의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다 황실 수사학 학교 교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로마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당시 밀라노에서 인기가 높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실리우스의 조력자였던 암브로시우스였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마주칠 기회가 생겼고, 암브로시우스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아우구스티누스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는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고,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만 몰두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비판해왔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말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해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동료들과 성경을 공부하던 어느 날, 바깥에서 들려오는 '집어라,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에 그는 무작정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 묵상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성경의 한 면을 펼쳐서 그 순간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는 방법으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펼쳐 눈에 보이는 구절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만을 채우려고 욕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로마13,12-14)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길로 회심하고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모든 세속적인 명예를 버리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서 수도공동체를 만들기로 했지요. 그 후 그는 북아프



리카 전체에 명성을 떨치게 되고, 히포의 주교좌 성당에서 사제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히포의 주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고백록', '삼위일체론', '신국론' 등 주옥같은 저서들을 편찬하며 그리스도교의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3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윤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윤리에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의지 중에서도 특히 '사랑(caritas)'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 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결과가 좋다고 해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면 다 윤리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랑이 윤리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올바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향유'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용'입니다. 향유는 오직 대상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중심으로 존재의 질서에서 인간보다 위의 것은 향유해야 하고, 아래의 것은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며, 따라서 대상들의 잘못이 아니라 왜곡되게 사랑하는 주체의 그릇된 사용이 문제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가치질서가 왜곡된 예들 보기45p)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한 삶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 하느님을 소유하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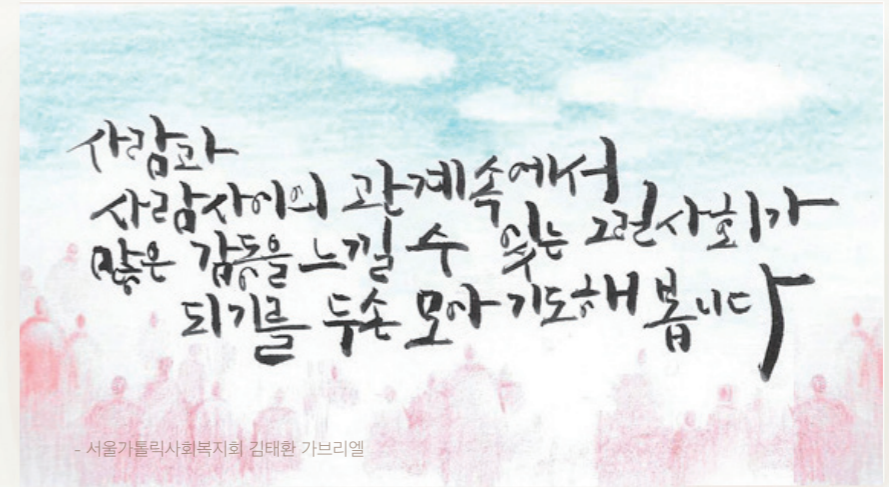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복음묵상글 릴레이

〈성경으로 세상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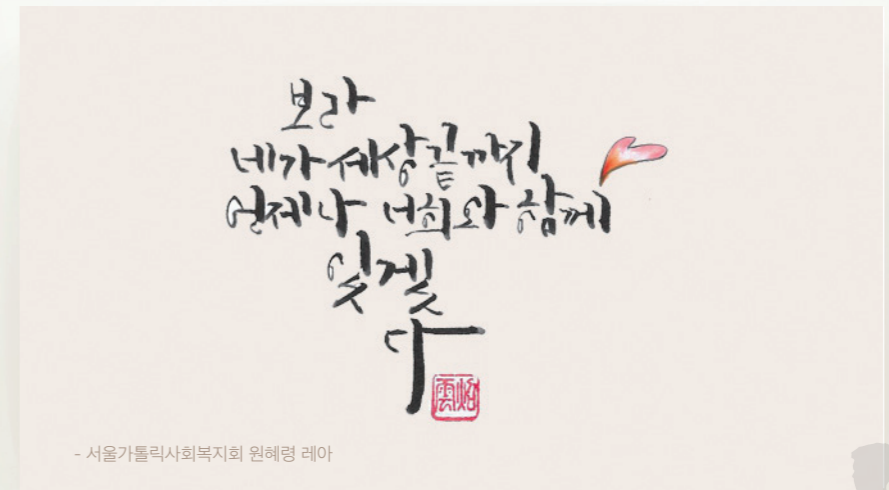
지난 여름호에 이어, 이번 겨울호에서는
9-11월에 걸쳐 게재된
〈성경으로 세상보기〉원고의 핵심문구를 발췌하여
캘리그래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복음에 드러난 카리타스를 통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는 2017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인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에 따라 더욱 풍부한 새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으로 세상보기〉를 사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재 종료 후에도 복음묵상글 열람을 원하시면
법인 홈페이지(caritasseoul.or.kr/bokji)에서 볼 수 있으며,
법인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caritasseoul)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태환 가브리엘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원태령 레아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 주며 하는 마음
'공감' 하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재은 프란체스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 손을 만질 수 없어도
그음성을 자정시킬 수 없어도 그분이 에게 아심을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도님이시며, 우리를 주위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사랑하러 오신 것입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송새암 안젤라

예수님께서 땀을 바쳐 사랑하신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너그름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은평의마을 Sr. 이향배 필립보

우리는 늘 깨어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다현 에스델



대림저금통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시기,
신자들의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대림절 저금통을 매 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금통 모금을 통한 많은 신자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담은 후원금은
서울 지역 내 가톨릭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매우 소중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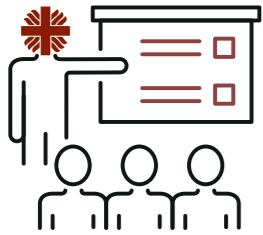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개발팀 02-776-8810



카리타스 한 줄 소식

09 September

- 09.02(금) 후원자故황선덕가밀라 1주기 추모 미사
- 09.03(토) 설립40주년 기념 미사
- 09.03(토) 자비활동가와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비의 희년 박람회 개최



- 09.26(월) ~ 소규모시설정기업무점검 10.14(금)

10 Octo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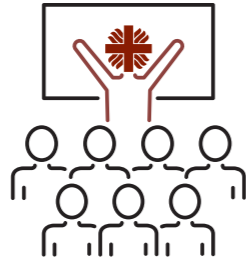
- 10.06(목) 법인 CI 매뉴얼 설명회
- 10.08(토) 서울가톨릭사회복지 분야별대표협의회 성지 순례



- 10.21(금) 2017년 등록단체 지원사업 설명회
- 10.22(토) 사회사목분과 역량강화 교육 및 2017년 분당 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설명회

11 November

- 11.01(화) ~ 서울가톨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02(수) 실무자 연수
- 11.05(토) 서울가톨릭어린이집협의회 보육교직원 성지순례
- 11.6(수)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총회
- 11.15(화) 서울가톨릭어린이집협의회 총회
- 11.16(수) 서울가톨릭청소년복지협의회 총회
- 11.17(목) ~ 대림절 저금통 제작 및 배분 18(금)
- 11.23(수) 서울가톨릭노인복지시설협의회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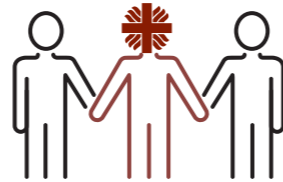
- 11.25(금) 서울가톨릭데이케어협의회 총회
- 11.25(금) 2017년 등록단체 지원사업 결과발표
- 11.27(일) 제13회 김장 쌀 나눔행사
- 11.29(화) 2016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0(수) 심포지엄



- 11.30(수) ~ 서울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동절기 2017.02.22(수) 아간순회

12 December

- 12.01(목) CS노인통합사례관리모델 공개컨퍼런스
- 12.02(금) 서울가톨릭지적장애인시설협의회 총회



- 12.03(토) 서울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총회
- 12.05(월) ~ 2016년 법인 사업평가 워크숍 6(화)
- 12.07(수) 서울가톨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총회
- 12.07(수)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송년행사
- 12.07(수) 서울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총회
- 12.10(토) 후원자 감사행사
- 12.13(화) 가톨릭발달장애인 송년미사 및 총회
- 12.14(수) 서울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 총회
- 12.20(화) 2016년도 CS노인통합사례관리사업 성과 연구 세미나
- 12.22(목) ~ 2017년 장학생 추천 접수 2017.01.16(월)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서

성 명(세례명)

휴 대 폰

유선전화

주 소

소식지 수령방법 우편 이메일 (@) 수령안함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신청인은 예금주와 동일해야 합니다.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은 행 명 출금이체일 선택 매월 5일 20일

계좌번호

후원금액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 (원)

예금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출금통장에는 매월 약정일에 인출기관명이 「서울카리타스」로 표시됩니다.

예금주

(서명)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본 회 회원가입,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각종 사업정보 제공, 연말정산소득공제 등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명례방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해지 사실통지 등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정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⑤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 제3자 제공 동의함 동의안함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을 통한 기부내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을 통해서 기부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며, 본회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기부금영수증을 별도 첨부하여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주민등록번호 - 동의안함

위와 같은 내용과 다름없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예금주

(서명)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제와 직원들은 매월 후원자분을 위한 미사 및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